

MT **머니투데이**

"야외는 괜찮지 않나?"...골프·등산 급증이 불안한 이유

기사입력 2020-04-26 18:11 최종수정 2020-04-26 18:39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레저 관련 소비 전년대비 30% 증가...실내 아니면 안전?]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20일 울산시 동구 슬도방파제가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4.20/뉴스1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최장 6일간의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개월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외 레저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레저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야외 레저활동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표적인 종목이 레저 4대장인 캠핑, 낚시, 골프, 등산이다.

밀집도가 낮다는 게 레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생존율이 높지만 야외에서는 전염성이 낮은 까닭에 봄철 야외활동으로 최적화된 게 레저라는 결론이다. 실제 최근 경기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밀집도는 여행·레저 선택시 주요 요소 1위에 오를 만큼 중요한 가치가 됐다.



(양평=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경기 양평군 중미산자연휴양림에서 직원들이 휴양림 개방을 앞두고 시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2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제외한 41개 자연휴양림 내 숲길 및 등산로를 개방한다. 하지만 야영장 및 숙박시설 등은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2020.4.21/뉴스1

밀집도 낮은 레저 4대장, 수요 '쑥쑥'

캠핑의 경우 최근 서울 근교의 캠핑장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과 캠핑업체 캠핑퍼스트에 따르면 올해 3월 셋째주부터 캠핑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온라인 캠핑용품 관련소비는 전년 대비 30% 늘었다. 진흥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했던 이들이 캠핑은 야외활동이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해 암암리에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낚시 이용객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분기 낚시 어선 이용승객은 61만명으로 전년 62만명과 별 차이가 없지만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늘었다. 인천 47개 항포구의 경우 낚시객이 25% 늘었고 전북 군산과 부안에서는 60~80% 증가했다.

골프는 10년만에 최대 호황을 누린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2.5%로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루트가 막히면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골프웨어, 장비 업체들도 3월말부터 전년비 20% 이상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등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2030 사이에선 나홀로 등산을 뜻하는 '혼산'이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정상 인증샷을 올리는 '등산스타그램'이 유행한다. 북한산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의 등산객이 늘었고, 롯데백화점의 경우 4월2째주 등산 관련 매출이 전주 대비 30% 넘게 늘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날씨를 즐기며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는 "투표를 마친 국민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 뒤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4.15/뉴스1

야외활동, 밀집 실내활동보다 낮지만 접촉 0 아냐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수목원이나 동물원, 자연휴양림 등 국립 야외시설 일부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위험요소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내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2015년 30대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낚시배를 탔다가 동승자가 감염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선실 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역시 4인이 하는 운동이고 식사나 목욕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 등산의 경우 호흡이 가빠진 확진자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내뿜을 때 교차해 지나칠 수 있다. 캠핑 역시 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접촉자 없이 즐기다 오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지친 국민들이 이번 연휴기간 경계를 풀다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는 상황이 재연될까 노심초사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정한 수준의 위험도 낮추는 방안이 병행된다면 실외 활동을 병행하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방역 측면에선 여전히 위험하다"며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31번 환자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확진자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일 확률이 높고, 결국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며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줘서 이만큼 대응해 왔는데 이런 경계수위가 낮아져 어느 순간 다시 폭발할까 의료진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연휴 기간의 야외활동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기간에 많은 분들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전히 전국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 줄리아 투자노트

▶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8&aid=0004400393>
